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이규현, 권윤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Kyuhyun Lee(pa2831@dst.ac.kr), Yunhee Kwon(sengbira@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는 D광역시 중학생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5점 만점에 1.2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 학업성적, 가족형태, 학교폭력 경험 유무, 경제상태에서 유의한 자살생각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및 우울과 정적, 사회적지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문제, 우울, 사회적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교폭력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삶의 문제,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지지를 증진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중심어 : | 중학생 | 자살생각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673 middle school students in D metropolitan city. Measures were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version. The mean score for suicidal ideation of the participants was 1.22, out of a possible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religion, record, family structur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economy status. Suicidal ideation correlated positively with daily life stress, problem of life and depression and negatively with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research,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problem of life, depression, social support, daily life stress, and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s the reduction of problem of life, depression, daily life stress, school violence and enhancement social support in order to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 keyword : | Middle School | Student | Suicidal Idea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여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1]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자살자는 1만 5,5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4명으로 OECD 평균인 11.3명의 2배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 사망자 중 13%가 자살을 택했으며, 사망 원인 중 1위였다[2].

2011년 대구와 2012년 영주에서 학교폭력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자살사건[3]의 공통점은 자살한 당사자가 중학생이라는 것이다.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으로 자아가 미성숙하여 인격의 통합이 불안정하고 신체·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은 어린이인 초등학생과 확실한 청소년의 지위를 인정받는 고등학생 사이에 낀 애매한 위치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과는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보다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고[4], 행복감이 낮다[5]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학생의 자살사건과 정신적 불건강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학생이 포함된 청소년기의 자살시도는 성인기에 비해 더 높으며[6], 또한 15세 중학생 시기에 자살생각의 경험이 있는 경우, 30세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1배나 증가한다는 연구보고[7]에서 청소년기의 자살문제는 반드시 예방해야 할 위험행동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생각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8]과 자살시도의 경험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다고 한 연구[9]보고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제기된다. 자살생각 즉시 자살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자살생각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시도율이 높다[10]. 따라서 초기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중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은 선행연구들[11-13]에 의하면 우울, 절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부모 갈등, 가족 의사소통 부족[14], 또래집단 및 교사와의 문제[15][16], 부모학대 및 또래 괴롭힘 [17]등이 있다.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활스트레스[8], 죽음의 태도와 삶의 만족도[18],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식[19], 자존감과 인간관계 및 또래동조성[2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을 단편으로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차원적 환경 특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의 발달 연구[21]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하나의 문제행동으로 본다면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심리적 특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적 특성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가정과 학교환경에서의 삶의 문제, 사회적 특성인 사회적지지, 심리적 특성인 우울 등의 포괄적인 접근으로 중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성인기의 자살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학생 시기의 자살생각[7]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1)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조사대상 표집은 연구의 현실적 여러 제약으로 인해 비확률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임의 선정된 D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한 중학생 680명을 편의표출하였다. 수집된 680부의 자료 중 설문지가 완성되지 않은 자료 7부를 제외한 673부의 설문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과 95% 검정력, t-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적용 시 Cohen [22]의 기준에서 작은 효과크기인 0.2를 산출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436명으로 본 연구에서의 표본 크기는 이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유안진과 한미현[23]이 개발하고 신재은[24]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정, 학업, 친구, 학교영역으로 구성된 27문항 4점 척도이며,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재은[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였다.

3.2 삶의 문제

삶의 문제는 가정, 학교 등 중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성문제, 부모님과의 불화문제, 성적문제, 자존감문제, 선생님과의 관계문제, 동성친구문제, 따돌림문제, 학교폭력문제, 학업문제로 내용을 구성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개발 절차는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결과로 제시된 10개의 문제에 대해 상담심리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청소년 상담전문가 1인으로 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내용타당도는 CVI(The Index of Content Validity)를 산출하여 80%이하인 수업이해도 문제 문항은 학업문제와 중복되어 제외하고 100% 일치된 문항 9개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9개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N=60)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조사(N=673)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다.

3.3 사회적지지

Zimet, Dahlem, Zimet와 Farley [25]가 개발한 MSPSS(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을 강성욱[1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가족, 친구, 다른 중요한 사람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총 12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 강성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3.4 우울

우울척도는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26]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지는 외로움, 무력감, 무가치함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다.

3.5 자살생각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개발한 YRBS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을 근거로 강수진[27]이 개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측정도구 중에서 자살 생각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 5점 척도(최하 5점~최대 25점)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2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자 3명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대상 2회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직접면접을 하는 역할모델링 모의훈련에서 설문지의 공통된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한 자료수집자 간의 일치도가 98-99%로 나타나 의사전달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보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 학생주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수락한 6개 학교 보건교사가 학생의 연구참여 설명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주어 부모 동의를 받는 연구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쳤다. 약속한 방문일자에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요된 시간은 대상자 1인 당 15~20분 정도였으며,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11명(31.4%), 여자 462명(68.6%), 학년은 중1 193명(28.6%), 중2 244명(36.3%), 중3 236명(35.1%)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417명(62.0%), 학업 성적은 '중' 400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부모+자녀' 형태가 549명(81.6%)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경험 유무는 '유' 49명(7.3%)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 376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3)

특성	구분	n	%
성별	남	211	31.4
	여	462	68.6
학년	1학년	193	28.6
	2학년	244	36.3
	3학년	236	35.1
종교	기독교	84	12.5
	불교	89	13.2
	카톨릭	83	12.3
	없음	417	62.0
성적	상	106	15.8
	중	400	59.4
	하	167	24.8
가족형태	부모+자녀	549	81.6
	조부모+부모+자녀	124	18.4
학교폭력경험	유	49	7.3
	무	624	92.7
경제상태	상	154	22.9
	중	376	55.9
	하	143	21.2

2.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1.83점, 삶의 문제는 5점 만점에 1.33점,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52점, 우울은 4점 만점에 1.49점, 자살생각은 5점 만점에 1.22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 (n=673)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일상생활 스트레스	1.00	2.63	1.83	0.41
삶의 문제	1.00	4.44	1.33	0.61
사회적지지	1.00	5.00	3.52	0.77
우울	1.00	3.25	1.49	0.43
자살생각	1.00	3.00	1.22	0.31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F=3.10, p=.015), 성적(F=22.49, p<.001), 가족형태(t=26.21, p<.001), 학교폭력 경험 유무(t=6.30, p<.001), 경제상태(F=41.3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 (n=673)

특성	구분	자살생각			
		M(SD)	t, F	p	Scheffe
성별	남	1.24(0.35)	1.37	.170	
	여	1.21(0.29)			
학년	1학년	1.23(0.35)	1.66	.151	
	2학년	1.21(0.29)			
	3학년	1.22(0.35)			
종교	기독교 ^a	1.16(0.29)	3.10	.015	b,d)a,c
	불교 ^b	1.26(0.23)			
	카톨릭 ^c	1.14(0.27)			
	없음 ^d	1.24(0.33)			
성적	상 ^a	1.13(0.23)	22.49	<.001	c)a,b
	중 ^b	1.18(0.29)			
	하 ^c	1.37(0.29)			
가족 형태	부모+자녀	1.24(0.32)	26.21	<.001	
	조부모+부모+자녀	1.07(0.12)			
학교 폭력 경험	유	1.48(0.30)	6.30	<.001	
	무	1.20(0.30)			
경제 상태	상 ^a	1.08(0.15)	41.37	<.001	c)a
	중 ^b	1.20(0.32)			
	하 ^c	1.39(0.29)			

4.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 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자살생각과 일상생활 스트레스(r=.31, p<.001), 삶의 문제(r=.53, p<.001), 우울(r=.5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r=-.25,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n=673)

변수	자살생각 r(p)
일상생활 스트레스	.31(<.001)
삶의 문제	.53(<.001)
사회적지지	-.25(<.001)
우울	.55(<.001)

5. 중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중학생의 자살생각 차이가 있었던 종교, 성적, 가족형태, 학교폭력 경험, 경제상태 특성 변수와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 등 9개 변수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

였다.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서 질적변수인 종교, 성적, 가족형태, 학교폭력 경험, 경제상태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설명변수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98로 나타나 1에 가까우므로 다중공선성이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삶의 문제(β=.39)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우울(β=.37), 사회적지지(β=-.31), 일상생활 스트레스(β=.28), 학교폭력 경험(유)(β=.13)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45.6% 설명하였다[표 5].

표 5. 중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n=673)

변수	B	SE	β	t	p
삶의 문제	.18	.02	.39	10.56	<.001
우울	.25	.03	.37	10.12	<.001
사회적지지	-.21	.03	-.31	-8.07	<.001
일상생활 스트레스	.12	.02	.28	8.02	<.001
학교폭력 경험(유)	.15	.03	.13	4.43	<.001
adjusted R ² =.456 F=109.74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5점 만점에 1.2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한 김성희[20]의 결과에서 약 0.5점(6점 만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았으며, 송민정[18]의 결과에서 0.5점(3점 만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는 자살생각 측정도구가 다른 점, 표집 대상자의 수가 달라 추후 반복 및 확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 및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자살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중학생도 포함되었으므로 전반적인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

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정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
한 김미경, 이은희[28]의 1.15(5점 만점으로 환산)점과 비
교해 더 높았다. 이는 한국청소년상담원[29]이 청소년 위
험행동 조사에서 중학생 자살생각이 고등학생보다 높다
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살
예방 교육을 중학생 때부터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종교, 성적, 가족형
태, 학교폭력 경험 유무,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았다는 김성희[20]의 결과와
비교할 때 다른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교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자살사고가 높다고 한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최봉실[3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선
행연구 결과의 일치성이 부족해 표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중학생
의 자살생각을 감소시켜야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차이가 있었던 특성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종교에서 불교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종
교가 없는 대상자가 종교가 개신교 및 카톨릭이라고 응
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았다. 이는 개신교와
카톨릭에서는 자살이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교육이
되고 있어 윤회사상을 믿는 불교와 죽음과 연관시켜 생
각할 수 있는 종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
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민정[18],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임미례[31]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가족형태에서 핵가족에 비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인 대상자의 자살생각이 낮았는데, 가족형태 특
성에 따라 중학생의 자살생각 차이를 확인한 연구를 거
의 찾아볼 수 없어 비교 논의하기에는 제한이 따르지만
핵가족에 비해 확대가족의 긍정적 영향으로 부모를 대신
해 중학생을 격려하고 지지해주어 자살생각이 낮았어,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작은 핵가족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
았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자
살생각이 높았는데 학교폭력과 자살충동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자살과 학교폭력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았는데 이는 송민정[18]의
결과와 같았다. 경제적인 문제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발
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 같이 경제상태가 좋지 않
을수록 문제 상황 발생의 확률이 많아져 자살생각에 까
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
구와 동일한 측정도구 및 특성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으
므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
다고 본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동일연구가 없어 직
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생
활스트레스[19], 우울[19][33], 고등학생의 사회적지
지[13]가 상관관계가 있었던 선행연구들과 일치 및 유사하
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우울, 사회적지지를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인
식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은 삶의 문제, 우울, 사회
적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교폭력 경험(유)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김성희[20]의 연구에서 자존감, 성별, 학업스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와 선
행연구가 차이를 보인 것은 투입한 요인변수 및 연구방
법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추후 동
일한 연구설계를 한 반복 및 확대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자살생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화된 영향요인 찾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난 삶의 문제, 우울, 사회적지지, 일상생활 스
트레스, 학교폭력 경험 유무는 중학생의 자살생각 위험
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
하여 자살생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해야 하며, 특히 중계가 어려운 인구나사회학적 특
성 요인에 비해 삶의 문제,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학
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

력과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삶의 문제,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학교폭력 등은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사회적지지는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긍정요소로 보고 가족상담, 또래상담 시 성장시켜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가족결속도가 완충요소로 작용한다는 김윤정, 강현정[34]의 보고에 근거하여 사회적지지 중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및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지교육, 상담에 대한 지침서와 인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시도에 대한 예방대책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국가가 공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문제, 사회적지지,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삶의 문제, 우울, 사회적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학교폭력 경험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의 자살생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영향변수를 확인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전체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반복 및 확대연구를 제언하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1년 사망원인, 통계청, 2012.
- [2] 보건복지부,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 [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096004
- [4] 유기영, 신영규, 은백린, 박상희, 독고영창,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우울증”,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소아과, 제43권, 제2호, pp.172-178, 2000.
- [5] 신미, 전성희, 유미숙,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9호, pp.131-150, 2010.
- [6] S. S. Daniel and D. B. Goldston, “Interventions for suicidal you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9, pp.252-268, 2009.
- [7] H. Reinher, J. Tanner, S. Berger, W. Beardslee, and G. Fitzmauric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63, pp.1226-1232, 2006.
- [8] 고성은, 홍혜영,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97-124, 2009.
- [9] 박은옥,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3호, pp.465-473, 2008.
- [10] A. T. Beck,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ner Medical Devision, Hapner and Row, 1976.
- [11] 권은희,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2] P. Rohde, J. S. Seeley, J. Rohling, and M. Rohling, “The life attitudes schedule-short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rrelates of adolescent suicide prone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3, pp.249-260, 2003.

- [13] 강성욱,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4] M. R. Smoczek, C. Oblaczynski, D. L. Lauck, P. T. Green, J. A. Early, and J. E. Smity, "Interventions for risk for suicidal and risk for violence," *Nursing Diagnosis*, Vol.11, No.2, pp.60-68, 2000.
- [15] K. M. Lubell and J. B. Vetter, "Suicide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The promise of an integrated approach," *Aggression of Violent Behavior*, Vol.11, pp.167-175, 2005.
- [16] K. Matsuishi, N. Kitamura, M. Sato, K. Nagai, S. Y. Huh, and K. Ariyoshi, "Change of suicidal ideation induced by suicidal attempt.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Vol.59, pp.599-604, 2005.
- [17] 홍나미, 부모학대와 또래 괴롭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8] 송민정, 중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9] 임인순,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식이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0] 김성희,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영향요인,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1] M. L. Hoffman, "Empathy: its limitation and its role in a comprehensive moral theor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Plenum, 1989.
- [22]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1988.
- [23] 유안진, 한미현,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4호, pp.49-64, 1995.
- [24] 신재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5]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pp.30-41, 1988.
- [26] 전건구, 최상진, 양병창,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1호, pp.59-76, 2001.
- [27] 강수진, 친인척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8] 김미경, 이은희,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 자살노출 및 자살보도 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목표 불안정성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2호, pp.403-429, 2011.
- [29]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 [30]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최봉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우울, 자살생각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32-40, 2007.
- [31] 임미래, 청소년의 스트레스, 절망감,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2]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35-247, 2013.
- [33] 이신애, 남녀 중학생의 충동성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4] 김윤정, 강현정,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241-249, 2014.

저자 소개

이 규 현(Kyuhyun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철학과(교육학석사)
- 1990년 2월 : 총신대학교 신학과(신학석사)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공학석사)

- 2004년 9월 : Fuller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박사)
- 2000년 3월 ~ 2008년 2월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목 및 교수
- 2014년 1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목회, 신학, 보건, 공학, 교육

권 윤 희(Yunhee Kwon)

정회원



- 1999년 2월 :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4년 9월 ~ 2014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간호, 보건, 상담심리, 교육